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와 시사점

이 병 오 *

1. 들어가며

교통수단의 발달과 아울러 ‘관광’은 대중적 관광(mass tourism)과 관광단지 관광(resort tourism)을 거쳐, 소규모 테마관광이나 가족여행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농촌관광’도 그린 투어리즘, 농촌 투어리즘(rural tourism)으로부터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 지속가능한 농촌관광(sustainable rural tourism), 푸드 투어리즘, 와인 투어리즘, 헬스 투어리즘, 체험관광 등으로 다양화하게 진화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지향목표가 환경부하(負荷)나 지역부하를 줄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스스로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지역특화 식품이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저성장,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촌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밀도 사회(low density society)인 농촌에 많은 도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자칫 환경파괴 및 오염, 유형·무형의 농촌자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의 환경과 자원, 생산기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특산물이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관광객과 지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좀 추상적이라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애매할 때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농촌관광의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지역을 모델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이론과 매치시키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boleee@kangwon.ac.kr).

2.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2.1.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가치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는 1993년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명 지원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원희 2005. pp. 1~2). 여기서는 관광의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3가지 측면의 적정한 균형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개념정리를 해보면, “농촌을 대상으로 한 관광이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을 잘 유지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관광객에게 높은 관광만족도를 제공하며 지속될 수 있는 농촌관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되는 것들은,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다원적 기능, 농촌자원 활용, 소규모 농가 및 농촌경제 지원, 협력과 공생의 농촌공동체 정신,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이익과 지역의 공익(공유가치)을 함께 고려, 높은 관광만족도, 장기 지속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지향 가치를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의 3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표 1>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지향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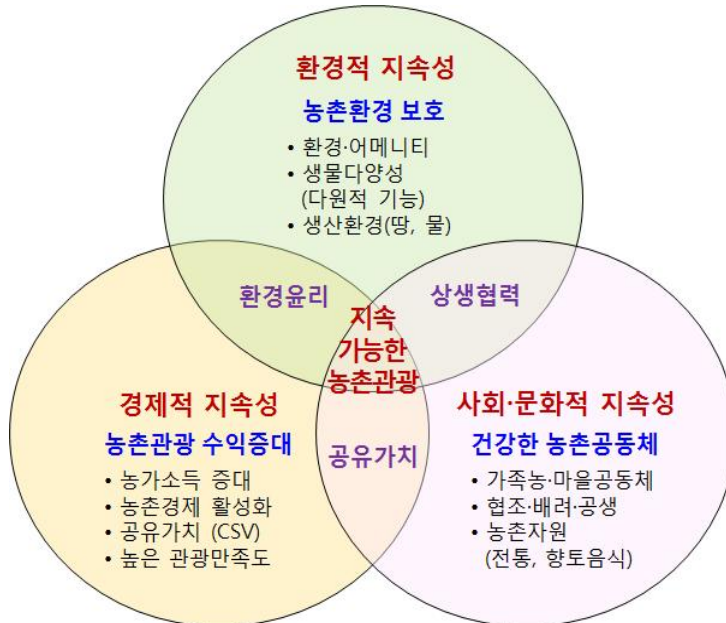
기준	내용
환경적 지속성	- 인류의 소중한 먹거리 생산 공간인 농촌환경 잘 보전. 특히, 농지와 물(지하수 포함)이 농약 등에 오염되지 않고 계속 깨끗한 상태로 이용되어,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간으로 유지 - 생물다양성과 함께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균형관계 유지 - 농촌의 다원적 기능(어메니티 등) → 농촌만이 갖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사회·문화적 지속성	- 농업생산의 특성상 가족농과 마을공동체 계속 유지 - 협동(協働, collaboration),¹⁾ 배려, 공생을 근간으로 한 농촌 공동체 매우 중요 - 유·무형의 농촌자원(農歌·祭禮·향토음식 등)은 매력적인 관광자원
경제적 지속성	- 농촌관광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 소득증대, 새로운 사업 전개, 고용 창출 → 농촌경제 활성화 - 농가의 이익 추구 + 지역발전 균형(활사개공(活私開公),²⁾ 공유가치 창출 CSV)³⁾ - 높은 관광만족도 실현 ← 친절, 진심, 쾌적성, 차별성, 식품안전성

자료: 이원희(2005)를 참조하여, 필자가 내용 추가하여 재구성.

<그림 1>은 이를 간략화 한 것이다. 환경적 지속성에는 농촌환경, 어메니티(amenity), 생물다양성 등이, 사회·문화적 지속성에는 농촌다움(rurality), 건강한 농촌공동체, 따뜻한 상호부조 정신, 문화유산 등이, 경제적 지속성에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재생(rural regeneration)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고, 협력, 배려, 소통, 상생을 근간으로 한 따뜻한 농촌공동체, 매력적인 농촌사회의 구축이 가능하다. 물론 농촌도 새로운 사업 전개와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농업인과 마을, 동·식물이 공존하면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계와 풍요로운 삶을 후손들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1>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3가지 요소



자료: 이원희(2005)를 참조하여, 필자가 그림으로 재구성.

- 1) 협동(協働, collaboration)은 농촌 마을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을 지칭하여, 협동조합처럼 조직 내(inner circle)에서만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인 협동(協同, cooperation)의 개념과 대비됨.
- 2) 활사개공(活私開公)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공공의 이익도 배려하는 비즈니스 개념을 말함.
- 3)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기업활동이 지역이나 소비자나 공존하는 경영방식을 말함.

2.2. 관광객과 지역민의 지향 목표 조화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지향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객이 너무 자기만족에만 치우치면 자칫 농촌의 환경이나 자원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이나 자원은 한번 파괴되면 다음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어 지속가능성이 감소한다. 또, 지역민이 너무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면 관광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관광객의 재방문이 줄고 입소문이 나빠져 지속가능성이 감소한다.

<표 2>는 농촌관광 주체의 관점별 지향 목표를 예시한 것이다. 관광객과 지역민의 지향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지향 목표를 이해하고 존중하다 보면 이러한 괴리가 줄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관광만족도가 높아야 관광객이 계속 오고, 그래야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과소한 농촌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 농촌의 삶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즉,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뒤에 살펴볼 6차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재생에 기여하게 된다. 영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농촌관광 주체의 관점별 지향 목표

관점	관광객	지역민
환경·자원	- 농촌 어메니티 즐기고, healing - 농촌자원 활용 (물고기잡기, 과수·가축 오너제도)	- 주변 환경 잘 보존·활용 (생물다양성확보, 환경오염방지) - 자원의 보전·재생산
사회·문화	- 농촌에서의 휴식 (슬로우 라이프, 싱그러움, 따뜻함) - 농촌 문화체험 (색다름, 신기함, 재미있음)	- 농촌다움 보전 (환경, 생활공간, 공동체정신) - 로컬푸드, 농촌문화 보전·전승 (특색 식품·음료, 농악, 유적)
경제	- 실용적 가격 + 체재형 관광 - 니즈(needs) 발생 (초지 걷다가 휴식 필요)	- 이익창출 + 노동력 보완 (농산물 수확체험, 과일따기) - 니즈에 부응(농가 티 룬)
상호 교류	-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호교류 - 관광객과 지역민이 서로 상대방의 지향 목표를 이해하고 존중	

자료: 靑木(2010, p.14) 참조하여 저자 수정.

2.3.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

한국에서는 농촌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화(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각 지역에 분산된 건강한 소규모 가족 농들이 지역의 부존자원(토종종자와 전통기술 포함)을 발굴하여,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차별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스스로 가공·판매하고(직판장, 꾸러미 포함), 여기에 체험관광도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영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6차 산업화에서 농촌관광은 과소화된 농촌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6차 산업화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농촌관광의 형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무형의 농촌자원과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ies)⁴⁾, 농촌다움, 향토음식,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 인간과 동·식물의 공생 등이다. 공유가치가 많다는 것은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공유가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공유가치	농업의 6차 산업화
• 환경적 지속성 • 사회문화적 지속성 • 경제적 지속성 • 차별화된 관광상품 • 지역밀착형 관광 • 높은 관광만족도	• 유·무형 농촌자원 • 농촌다움 • 농촌 어메니티 • 향토음식 •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 • 인간과 동·식물의 공생	•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 혁신+아이디어 • 농촌공동체(협력·공생) • 연결의 경제(네트워크)⁵⁾ • 농가소득 증대(부가가치) • 농촌경제 활성화

자료: 저자 작성.

4) 사람들에게 휴양적·심미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농촌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총칭하는 용어임. 여기에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지역 고유의 정주패턴, 경작지, 고건축물,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이 포함됨(농업융어사전, 농촌진흥청).

5) 연결의 경제(Economy of linkage)는 경영체와 경영체가 상호 협력하여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내는 것을 말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는 규모확대를 통해 비용감소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만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이기주의에 빠져, 환경이나 이웃의 존재를 잊기 쉬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는 한 경영체 내에서 서로 다른 부문이 협력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만, 한 경영체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님. 결국 이 3자가 필요와 부문에 따라 잘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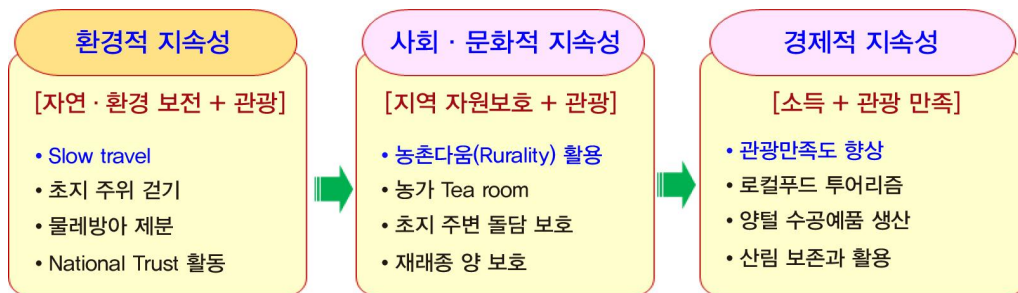
3.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

3.1. 사례지역의 특징

사례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Cumbria) 지역이다. 호수지역(Lake District)이라고 불릴 만큼 호수가 많고 경치가 빼어나다. 원래 소, 양을 주축으로 한 축산 주산지이다(<그림 3>의 왼쪽 참조). 그런데 2001년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논의 끝에,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지향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 어메니티, 전통,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여기에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을 잘 가미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둘째, 조용하고 여유 있는 여행(슬로우 트래블, slow travel)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킨다. 넷째,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규모 비즈니스(small business)로 연결시킨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2> 사례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구도



자료: 저자 작성.

3.2. 환경적 지속성

3.2.1. 초지주변 산책로 개방 및 물레방아 제분

먼저, <그림 3>의 오른쪽에서 보듯이, 목장주들이 연대·협력하여 관광객들이 초지 주위를 산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예전에는 사유지인 초지에(설사 주변이라도)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사진의 관광객 뒤로 보면 작은 나무 출입문이 있다. 목장주들의 초지 개방조치로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이 초지 저 초지의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나무 문고리만 여닫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은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즉, 농촌의 농업생산기반이나 환경의 훼손 없이 관광객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는 싱그러운 어메니티가 탁월하고 슬로우 트래블 트렌드와 맞아 도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그림 3> 컴브리아 지역(좌)과 초지 주위의 산책로(우)



컴브리아 지역의 위치

자료: 저자 작성.



가축 방목지 주위의 산책로

물레방아 제분소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수력(小水力) 에너지로 맷돌을 돌려 귀리를 제분하는데, 다소 거친 귀리가루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제분소 입구의 작은 찻집(Tea Room)에서 판매한다<그림 4>. 귀리가루도 종이봉지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거대한 맷돌이 순수한 물의 힘으로 귀리를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산업화에 밀려 사라진 물레방아를 재현한 것도 이색적이지만, 에너지 자립이라는 콘셉트와 함께, 거칠어서 오히려 위 건강에 좋은 귀리 빵이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

<그림 4> 물레방아 제분소(좌)와 전통 귀리 쿠키(우)



물레방아 동력의 맷돌 제분소



전통 귀리 쿠키

자료: 저자 작성.

3.2.2. 농가와 환경의 공존-내셔널 트러스트 활동

예전부터 이 지역에는 재래종 양(Herdwick 종)이 있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메리노(Merino) 종 양에 밀려 사라졌다가 최근 '우리 지역 자원 살리기' 붐을 타고 다시 복원되었다. <그림 5>의 왼쪽에서 보듯이, 이 재래종 양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주변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오염이 우려되자,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에서 농가의 방목지를 매입하였다. 이 방목지는 다시 농가에 임대되지만, 농가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시한 친환경 사육방식(방목 두수 및 방목 일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래종 양 사육과 호수 환경보전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원이나 산림관리사무소(민영)에서는 학생이나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새 집 짓기, 새 먹이통 달아주기, 먹이 넣어주기, 자연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그림 5>의 오른쪽).

<그림 5> 호수(좌) 및 토종 동물(우) 보호



호수보호-내셔널 트러스트 활동

자료: 저자 작성.



토종 붉은색 다람쥐 보호운동

3.3. 사회·문화적 지속성

3.3.1. 농촌다움의 보전 및 활용

<그림 6>의 왼쪽에서 보듯이, 농가들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려, 축사 2층 건초창고를 개조하여 티 룸(Tea Room)을 만들었다. 관광객들은 초지를 걷다가 티 룸에 들어와 경양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쉬기도 하고, 티 룸 유리창을 통해 축사에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젖소를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자기가 마시는 우유나 유제품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신뢰하게 되었다. 또는 지하 농기구 창고를 개조하여 축산가공품이나 수공업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주변 농가들의 유기 농산물이나 축산가공품, 수공업품도 함께 판매한다. 농촌공동체의 따뜻함과 상호협력 정신이 살아있다(<그림 6>의 오른쪽).

<그림 6> 농가 티 룸(좌) 및 가공품 판매장(우)



농가 티룸-축사 2층 건초창고



가공품 판매장-지하 농기구 창고

자료: 저자 작성.

3.3.2. 농촌자원의 보전

<그림 7>의 왼쪽에서 보는 것은, 중세에 조성된 초지 주위의 돌담 경계선이다. 예전에는 기계화화가 되지 않아 이를 치울 수도 없어 그대로 두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경이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재래종 양의 복원 사례와 같이, 토종 동식물을 복원하여 생태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호기심과 신선함을 불러 일으켜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게 된다. 이러한 매력이 있어야 그 관광객은 다시 오게 되고, 주변사람들에게 이 지역 방문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7> 초지주변의 돌담(좌) 및 양털 공예품 판매(우)



중세에 조성된 초지의 돌담



재래종 양털 수공예품

자료: 저자 작성.

3.4. 경제적 지속성

3.4.1. 지역특산 식품·음료

앞에서 이야기한 재래종 양고기는 육질이 좀 거칠지만 지방이 적어 웰빙(well-being) 식으로 호평이며, 양털도 다소 거친 편이지만 그 지역산이라는 측면에서 인기가 좋다. 그동안 없던 로컬푸드를 개발하여 내방객들에게 선보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또, 그 지역의 여성그룹은 네트워크(Wool Clip Women Network)를 결성하여, 전통 손뜨개질로 다양한 양모제품(모자, 스웨터, 방석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그림 7>의 오른쪽 그림 참조). 이 네트워크는 역할분담 방식의 공동체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그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색 있는 식품이나 음료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허브나 생강이 많이 나면 이를 강조하고 브랜드화한 맥주나 음료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경제 형태는 대기업 중심의 전국단위 브랜드(national brands)에 익숙한 관광객들에게 매우 큰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런 다양한 지역 특산물(local brands)의 개발과 판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3.4.2. 대여 자전거

컴브리아 지역은 영국의 중간지점으로써 횡단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렌트 카처럼 자전거를 빌려(rent bicycle),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에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으며, 횡단 증명 스탬프도 받을 수 있다.

3.4.3. 산림의 보존과 활용

영국은 산림청이 민영화 되면서 산림과 국립공원을 시민들에게 대폭 개방하였다. 예전에는 주로 산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지금은 보호를 하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그림 8>에서 보듯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 둘레를 싸서 보호하면서, 짚 와이어(zip wire)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안전을 위해 조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실제 타기 전에 지상에서 약간의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척 재미있기 때문에, 여성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렇게 되니까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림 8> 짚 와이어(좌) 및 산악자전거(우) 타기



나무보호 & 짚 와이어 타기

자료: 저자 작성.



숲 보존 + 산악자전거 코스

그밖에도 난이도에 따라 몇 개의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여 산악자전거를 대여하는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9>의 왼쪽). 관광객은 산악자전거를 다 사용 후 지정된 세척장에서 깨끗이 손질을 한 뒤, 대여사무실에 반납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원이나 산림관리사무소에서는 또 산림부산물로 목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도 운영하고 있다(<그림 9>의 오른쪽). 관광객이나 시민은 이 공방에서 진행되는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관광객이나 시민은 이 목 공예품을 살 수도 있다.

<그림 9> 산악자전거 코스(좌)와 목 공예품 공방(우)



렌트 산악자전거

자료: 저자 작성.



시민들이 만든 목 공예품

4. 영국 사례의 시사점

첫째, 농촌자원을 슬로우 트래블 트렌드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다. 큰 시설투자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규모 가축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지 주위 걷기는 슬로우 트래블 컨셉과 잘 매치가 되며, 관광객들은 농업생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사라져 가던 재래종 양(지역 토종자원)을 복원하여 로컬푸드 건강식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렸다. 축사 2층 건초창고를 개조하여 티 룸으로 만들었고, 지하 농기구 창고를 개조하여 유기농산물, 축산가공품, 수공예품의 소규모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세에 조성된 초지 주위의 돌담 경계선도 농촌의 역사유산으로서 스토리텔링 되어 관광객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셋째,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물레방아 제분소에서 맷돌로 귀리를 제분하여 빵과 쿠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 짚 와이어를 설치하거나 산림 부산물로 목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민이나 학생들은 공원에서 야생 동식물에 대해 학습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래종 양의 숫자가 늘어나 호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자, 내셔널 트러스트의 중재로 농업생산과 환경을 공존시킨 것도 좋은 사례이다.

넷째, 건강한 농촌공동체 정신이 돋보인다. 농장주들이 연대하여 관광객들에게 초지 주위를 걸을 수 있게 개방하였고, 농촌 여성그룹은 재래종 양털로 손뜨개질을 하여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거점 농가의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주변 농가의 농산물이나 가공품, 공예품 등도 함께 판매한다.

즉, 지역자원, 농촌다움, 지속가능성(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을 잘 살리면서,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농업·농촌을 풍요롭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관광객을 맞는 농촌 쪽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민들이 재미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두막 카페, 물레방아 빵집, 짚이나 목 공예품 공방, 마을 뒷산의 나무를 활용한 그네나 짚 와이어 설치, 논·하천·연못의 물고기·수중 곤충·수초 탐구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은 통상 가족, 친구, 동호인 등 소그룹으로서, 농촌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농민과 교류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물론 관광객도 농촌의 환경과 자원을 잘 보존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동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농촌공동체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농촌이 갖고 있는 공간과 사회·문화 등 공유자산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평소부터 '협동의 기반'이 강화되도록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나 지역 공익형(CSV) 사업을 많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체험관광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나, 농촌 주부들의 농가식당 공동운영, 농가와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전통식품·공예품 가공 등의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법·제도 정비 포함)과 소프트웨어적 혁신(협동정신, 농촌공동체, 친절함 등)을 병행하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성과를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원희. 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多方一成, 「그린 라이프 투어리즘으로의 창조」, 芙蓉書房출판, 2013.
 伊庭晴彦 외. 2016. 「농업·농촌의 사회공헌형 사업론」. 농림통계출판.
 長尾正克 편. 2011. 「그린 투어리즘 北海道로부터의 發信」. 築波書房.
 青木辰司 외. 2006. 「지속가능한 그린 투어리즘」. 丸善.
 青木辰司 외. 2010. “진화하는 농촌 투어리즘”, 「농업과 경제」 (임시증간호). 昭和堂.
 Martin Mowforth and Ian Munt. 2016. *Tourism and Sustainability*. Routledge.
 Sally Everett and Cara Aitchison. 2008. The Role of Food Tourism in Sustaining Regional Identity.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 16. No. 2.